

약용식물원을 이용한 인제군 지역활성화 전략

The Region Activation by Medicinal Garden in Inje-Gun

박석근(Park, Suk Keun)

(한국식물원연구소) (Korea Botanical Garden Institute)

I.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큰 관심사는 건강한 생활과 불로장생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자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진시황조차도 이루지 못한 일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관심은 줄지않고 계속된 노력을 하여 인간의 수명은 많이 연장되었으나 건강하게 생활을 영유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보리고개가 있던 1970년대까지 우리의 농산촌 지역은 우리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량기지였다. 일제와 6.25를 겪어오면서 황폐된 우리의 산하를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하는 구호아래 열심히 일한 결과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많은 수출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경제성공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WTO 협상에 의해 값싼 농산물이 마구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농산촌과 농업인들은 더 이상 농업만으로 버티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더 더욱이 농산촌 지역은 교육혜택, 문화혜택, 의료혜택 등의 부족 때문에 이곳을 이탈하여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는 거대화되어 주택, 환경, 도로 등의 많은 사회문제가 생기게 되고 반면에 농산촌 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더 이상 어린 아이의 울음을 듣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농산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대부분이 인구의 계속된 감소와 농사가 주된 산업인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농산촌과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활성화 특히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

농산촌이 활성화되려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소득보다도 농외소득이 높아야 한다는 사실을 농외소득 80%의 일본이나 대만의 농촌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을 위하여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자녀들과 체험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이 도시민의 요구와 지방 지자체의 수익증대 및 고장 알리기의 취지와 맞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형적 농산촌 지역인 인제군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이러한 방법이 인제군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II. 본론

1. 인제군의 현황

강원도의 중동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영서북부지역으로 한국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646.33km² 이며, 인구는 2000년에는 34,120명이었으나 2003년 3월 31일 현재 32,205명(남자 16,621명, 여자 15,584명)이며, 동경 127°59' ~ 128°32', 북위 37°21' ~ 37°36' 에 위치하고 있다.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과 더불어 38선에 접한 곳으로 남북간의 거리는 72.1Km 이다. 동쪽으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서쪽으로 양구군, 춘천시, 남쪽으로 홍천군에 접한다.

인제군내에는 태백산맥이 종관하는 영서 산악지대로서 무산(1,319m), 향로봉(1,293m), 설악산(1,708m), 점봉산(1,424m), 가칠봉(1,240m) 등이 연봉을 이루어 높고 험준하며, 서쪽은 도솔산맥이 양구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하천은 북한강의 지류인 소양강이 주류가 되어 남류하면서 인제읍 부근에서 북한, 내린천 등과 합류한다. 그들 하천 유역에는 곳곳에 소규모의 하안단구와 서화분지가 발달하여 주요생활무대로 이용된다.

내륙 산간지역이므로 여름·겨울의 기온교차뿐만 아니라 낮과 밤의 일교차도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며,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고 겨울의 강설량도 많다. 연평균 기온 10.5℃, 1월 평균기온 -6℃, 8월 평균기온 24.2℃ 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021mm이다.

2003년 1월 1일 현재 행정구역은 1읍(인제읍), 5면(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에 인구는 32,205명이나 현재 일평균 전입자는 13.3명이고 전출자는 14.7명으로 연간 511명씩 감소되어 이런 추세로 가면 2007년 현재 3만명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예산규모는 총 1,315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9%이다.

인제군의 군목은 주목이고 군화는 철쭉이나 이와 관련된 축제는 없는 실정이다. 지역특산물로는 송이, 인진쑥(인제에서 생산되는 진짜 좋은 약쑥), 치커리 등이 있다.

2. 국내 그린투어리즘 현황

1) 그린투어리즘의 정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란 농촌지역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전통문화가 숨쉬는 시골정취를 즐기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인과 농촌사람이 상호교류를 통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여가생활과 정착을 유도하고 그 교류 인구를 기반으로 농업이나 마케팅활동을 촉진시켜 파급효과를 확산시킴으로서 지역전체가 활성화되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산업이다.

2) 그린투어리즘이 지역의 발전에 주는 효과

- (1) 농산물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득증대
- (2) 농촌 정주인구의 증가와 교류인구 확대로 지역활성화
- (3)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4)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상품의 고급화
- (5) 군민의 정서함양과 여가 활용 휴식공간 다양화
- (6)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조성
- (7) 친절한 주민의식 함양으로 군민 정서 순화
- (8) 도시인과 교류증대를 통한 군민 의식수준 향상
- (9) 농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득향상
- (10) 친환경적 지역개발로 청정지역 지속 유지
- (11) 개성있는 전통 향토음식의 개발 전승을 통한 소득증대
- (1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 (13) 주택개량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14) 군민화합과 자긍심 고취
- (15) 농업 이벤트행사의 개최로 수입증대 및 노동력 절감(예: 칩캐기, 밤줍기 대회 등)

3) 건강테마 그린투어리즘

- (1) 평창의 청성파라다이스(www.chungsung.co.kr)
청성건강센터(특수녹용사우나), 사슴과 염소농장, 청성미락식당 등 운영
- (2) 홍천의 아로마허브동산(www.aromaherb.co.kr)
허브식당, 허브찜질방, 허브마사지실, 허브제품매장 등 운영
- (3) 양평의 생태산촌마을(에코닥터스 타운) 건립
마을단위로 생태마을로 조성하여 건강 타운 건립

3. 외국의 약용식물원을 이용한 건강테마 그린투어리즘 현황

1) 일본

각 지역마다 약용테마식물원인 약왕원(藥王園)을 조성하여 약초관람 및 생약재 관련 제품 판매 등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2) 유럽

유럽 어느나라를 가던지 많은 약초원인 허브원이 있으며 여기를 거닐거나 냄새 맡거나 관련 가공 제품을 사가지고 간다. 대부분 나라전체가 허브정원이라고 할 정도이다.

4. 인제군의 지역축제 현황

1) 인제빙어축제

- (1) 행사시기 : 2003년 1월 24일(금)부터 1월 26일(일)까지 (제6회)
- (2) 행사장소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양호 일원
- (3) 주최 : 인제빙어축제추진위원회
- (4) 후원 :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 (5) 문의처 :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TEL : (033)460-2082 FAX : (033)460-2089
- (6) 축제설명 :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지류와 내린천의 관문인 소양호에서 은빛 빙어를 주제로 펼쳐지는 빙어축제는 맑고 투명한 빙어와 눈덮힌 내설악 경관, 빙판위에서 행하여지는 산촌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인제군만의 고유한 축제이다.

인제군 남면 소양호 지역은 설악준령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수와 방태산을 감돌고 흐르는 내린천이 합수되어 형성되는 전국최대의 청정호수로서 겨울철이면 300만평의 빙판이 형성된다. 또한 이곳에서는 산란을 위하여 등지를 찾는 빙어떼가 몰려들어 강태공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빙어는 공어, 은어, 방어, 뱀어, 병어라고 불리는 담수어종으로 6℃~10℃의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산란하는 은빛의 투명한 어류로서 우리나라에 보급된 역사는 짧지만 빙어 축제와 더불어 그 명성이 새롭게 부각되어가고 있다.

빙어축제에서는 빙어낚시대회, 빙어 시식회 등 빙어를 주제로한 행사와 빙상볼링, 전국대회 규모의 얼음축구대회, 스노우산악자전거대회 등의 레포츠 경기, 그리고 눈썰매장, 이글루와 눈조각전시 등 눈과 얼음을 주제로한 체험행사를 개최하게 되며, 수물지역 및 주변 산촌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민속놀이 및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은빛 빙어와 겨울철 빙상레포츠가 함께 어우러져 펼쳐지는 강원 인제에서 참가자 모두는 순박한 산촌사람들의 문화와 고향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7) 프로그램 : 전국얼음축구대회, 어린이썰매대회, 빙어가요제, 스노우산악자전거대회, 국제스노우렐리대회, 빙어사진공모전

2) 황태축제

- (1) 행사시기 : 2003년 2월 28일(금)부터 3월 2일(일)까지 (제4회)
- (2) 행사장소 : 북면 용대 3리 (미시령 삼거리)
- (3) 주최 : 황태축제 추진위원회, 강원일보사
- (4) 후원 : 인제군의외 3개단체
- (5) 문의처 :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TEL : (033)460-2082 FAX : (033)460-2089
- (6) 축제설명 : 지역 특산물인 황태 축제 행사는 1·2월을 전후하여 황태의 본고장인 북면 용대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눈속에서 열려지는 황태축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신비스러움과 즐거움을 선사하

고, 또한 기린면 진동리의 깊은 눈속에서 설파를 신고 하는 눈밭기행사는 동심을 자아내게 하는 등 겨울철이면 각종 이벤트 행사로 많은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태란 눈 많고 바람 무성한 산악 지대에서 말린 명태를 말한다. 밤에 얼어 팽창했다가 낮에 녹아 수축하는 현상을 4개월이나 거쳤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건조한 복어에 비해 속살이 숨같이 부드럽고 고소하다. 한겨울 동안 인제군 북면 용대리 30여개 덕장에서 40만 마리의 황태가 생산되는데 최근 들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7) 프로그램 :

<노인 경로 잔치>

팔도 예술단의 진행으로 민요, 트롯트, 국악, 품바 등을 경쾌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화려한 율동 및 각종 복과 장고, 뽕파리, 가위춤으로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동시에 축제장 분위기를 돋구어 주는 행사입니다.

<축하공연>

트롯트, 발라드, 댄스로 구분한 초청가수들의 공연과, 댄스팀 초청공연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 향상 및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어린이 트롯트 경연대회>

어린이들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총65만원의 상금을 놓고 어린이들이 트롯트 경연을 통해 시상하며, 즉석 댄스경연, 초청공연 등이 함께 펼쳐집니다.

<각설이 공연>

토속적 문화를 통해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호응하며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황태노래자랑>

지역주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그맨의 사회로 진행되며 댄스팀 공연과 초대가수 공연이 함께 펼쳐집니다.

<관태 대회>

관태는 다 말린 황태를 저장하기 위해, 싸리나무 꼬챙이에 10마리씩 꿰는 황태 건조의 마지막 단계를 부르는 말입니다. 10마리씩 숫자를 맞추기 위해 우리의 전통 리듬에 맞춰 숫자를 세며 일하는 덕장인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이 배어 있는 행사입니다.

진부령 고갯길 겨울철 덕장의 풍물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태 투호 대회>

황태의 꼬리부분을 손에 잡고 일정 거리에 놓여진 항아리 안에 황태를 던져 많이 집어넣는 투호 게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즉석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황태를 시상품으로 제공합니다.

<황태 O. X 퀴즈>

황태에 관한 상식을 알리고, 인근 관광지, 유적지, 유래등을 소재로 하여퀴즈를 통해 풀어보는 게임입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상품으로 준비된 황태와 더불어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다져 나갈 수 있습니다.

<황태구이 체험>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체험 행사입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양념장을 마을 청년회에서 나누어 드린 황태에 발라 준비된 숯불에 황태를 구어 먹는 이색적인 행사로 황태 마을 주민들의 풋풋한 정을 느낄 실 수 있습니다.

<얼음속 황태 찾기>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각진 얼음속에 들어 있는 황태를 먼저 준비된 돌로 깨뜨려 꺼내는 게임행사입니다. 남녀노소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밖에 체험 행사>

황태 정량 달기, 황태 항아리 담기, 황태 짬뽕기 대회 등의 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나도 축구왕>

공기압 튜브로 된 축구 골대에 3m전방에서 원안에 공을 넣어 성공하면 황태를 나누어주는 게임

<인공암벽등반>

에어튜브로 6m 정도의 인공암벽을 정상까지 발리 올라가는 게임.

황태 마을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매바위 인공폭포와 암벽을 형상화하여 만든 게임입니다.

<얼음썰매, 팽이치기>

마을에서 제작한 얼음 썰매를 인공으로 제작한 행사장 내 썰매장에서 팽이치기와 함께 자유롭게 부모님과 함께 즐기고 체험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이밖의 문화행사>

페이스페인팅, 캐리컬처, 저글링 쇼, 뽀에로, 열전 황태가족 노래방 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황태가족의 밤>

지역주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용대주민의 민심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용대인의 밤>

용대리 주민의 화합 한마당 잔치

<얼음조각 전시>

관광객의 기념촬영 장소 제공과 얼음조각 체험

<황태기념 촬영>

덕장, 황태탑 등을 행사장 곳곳에 조성하여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의 기념사진 촬영 장소를 제공합니다.

<마차투어>

관광객들을 마차에 무료로 태워 황태덕장 및 용대리 마을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합강문화제

(1) 행사시기 : 2003년 10월 9일(목)부터 10일(금) (21회)

(2) 행사장소 : 인제군 합강정 일원

(3) 주최 : 인제군

(4) 후원 : 합강문화제추진위원회, 인제군체육회, 인제문화원, 내린문화회

(5) 문의처 :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TEL : (033)460-2082 FAX : (033)460-2089

(6) 축제설명 : 합강문화제는 1983. 10. 27부터 시작된 향토문화축제로 합강(合江)이라는 자연지리적 경관과 역사지리적인 상징성을 전승시키고 있는 인제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이다. 합강은 인제군 북쪽의 서화천과 동쪽의 내린천이 합류되어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남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1676년(숙종 2년)에는 합강이 보이는 곳에 합강정 세웠으며, 1742년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 8도 2부의 중앙이 되는 곳에서 별여제를 거행하였는데, 강원도의 중앙은 인제의 합강주변이 중앙지로서 제단을 세워 별여제를 지냈을 만큼 합강주변은 역사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중앙단체의 역사적 전승성과 합강의 자연지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인제군은 1983. 10. 27 향토문화축제를 합강문화제로 명명하고, 합강정 앞에서 인제군 수호지신에게 제를 올리며 제1회 합강문화제가 시작되었다. 제2회 합강문화제는 1984. 11. 5에 개최하였으나 홍수피해가 심하여 제례행사만 개최하였으며, 1985. 9. 9 개최된 제3회 합강문화제에서는 제례행사를 시작으로 노래자랑, 합창경연대회, 사생실기대회, 주부백일장등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지역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 합강뗏목띄우

기를 시연하였으며, 목도, 그네, 씨름, 육상경기, 줄당기기, 벼섬나르기, 불씨만들기 등의 전통민속체험경기와 체육행사등이 열려 지역문화축제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합강문화제는 1985년의 3회를 기점으로 군민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례행사와 문화예술 전시행사, 군민의 화합과 공동체적 의식을 도모하기 위한 전통민속놀이의 체험경기화, 읍면별 체육경기로 대별되어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지역전통민속의 보존·전승을 위해 뗏목, 솥굽기, 갈이남박 만들기 등의 산촌지역의 생업민속을 시연하고 있다.

2001년에는 17세기 후반부터 전승되던 중앙단을 복원하여 제례를 봉행하고, 전통민속경기, 체육경기 등의 군민체육대회, 경축행사, 박인환 문학제 및 예술전시행사 등이 개최되었다.

4) 하늘내린 인재 레포츠 축제

- (1) 행사시기 : 2003년 8월 1일(금)부터 8월 10일까지(일) (제1회)
- (2) 행사장소 : 내린천수변공원(각 종목별경기장), 인재읍 시가지 등
- (3) 주최 : 인재군
- (4) 후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 (5) 프로그램 : 산악자전거, 래프팅,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자작차대회, 서바이벌 게임, 4륜 자동차, 풋살경기, 트라이애슬론, 인라인슬라럼대회체험, 번지점프, 서바이벌, 통나무서바이벌, 물풍선 던지기, 마차 및 카트체험, 다트게임, 로데오

5. 인재군의 지역활성화 전략

1) 지역명소로서의 테마약용식물원 만들기

인재군은 주변에 뛰어나 명산들이 많고 약초들도 풍부하나 채취 및 재배를 통한 상품 개발 및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을 가는 사람들에게 일부 판매하거나 우체국을 통한 우편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는 약 20여종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좀더 많은 지역 특산품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명소가 필요하다.

지역에 공장이 하나 있는 것보다 식물원이 하나 있는 것이 지역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좀더 환경친화적이며, 초기투입 비용이 적게 들어가며,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없이 꽃과 나무는 날이 갈수록 부가가치가 커진다. 예로서 제주도는 여미지(2002년 128만 입장), 한림공원(2002년 100만 입장), 분재예술원, 한라수목원 등이 있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고 거제도의 외도해상농원(2002년 100만명 입장)은 우리나라에서 지역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대표적인 식물원이다. 그 밖에도 가평의 아침고요원예수목원(2002년 30만 입장)도 서울시민에게는 많이 알려져서 군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강원도의 평창군에서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테마식물원으로 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한국자생식물원과 허브나라농원이 있다. 물론 이곳들은 입장료를 받고 있다. 평창군에는 이외에도 강원도 농

업기술원 산하의 산채시험장이 있다. 이를 활용하여 산채식물원이나 또는 약용식물원을 개원하여도 좋을 듯하다. 홍천에도 허브원을 중심으로 테마약초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중에 있다. 앞으로 사람의 수명은 연장되고 생활의 수준은 높아가는 이즈음에 현대인의 주 관심사인 건강을 테마로 한 이러한 약용식물원을 만드는 것은 외부의 관광객들을 이곳으로 불러오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약용식물원을 우리나라 천혜의 청정 천연 약초 지역인 인제군에 이러한 건강을 테마로 하는 약용식물원이 하루빨리 조성되어 외지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건강테마 도농 녹색교류(Green Tourism)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활용 :

계속되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소득증대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나 다행히 아직도 많은 곳이 훼손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 그리고 순박하고 훈훈한 인심이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 도시인이 자주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있는 지역으로 만듦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21세기 새로운 농산촌활성화 전략이다.

결국 그린투어리즘이 지역주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있는 그대로의 지역자원(자연·문화·생활)을 활용하여 도시주민의 에너지를 흡입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이룩하는 지역진흥전략이라고 볼 때에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민들의 단합과 타지역민들에게 자기 고장을 홍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 지역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일찍부터 지방자치체가 시작되었던 일본의 경우는 “마쯔리”라고 부르는 지역축제가 전국 어디를 가나 볼 수가 있으며 보통 수십 회째를 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선2기 단체장이 들어서면서 급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현재 1년에 3,000여개의 축제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이제 겨우 4-5회째이며 짧은 역사와 부족한 준비와 행정전시성 축제로 별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함평의 나비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평창의 메밀축제 등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제의 축제는 1월(빙어축제), 2월(황태축제), 8월(레포츠축제), 10월(합강문화제) 정도이며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약초와 관련하여 4월에 칩개기축제, 5월 인진쑥뜯기축제 등이 행하여 졌으면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생산된 현지에서 제값을 받고 생산지에서 모두 소비, 판매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야겠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지역축제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중간유통을 줄이고 직거래를 통한 판매를 늘려야 할 것이다. 기존의 유통 방식보다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 대형 할인점 판매,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판매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유통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중에서 우체국의 상품 판매는 2003/2004 (2003년 8월 1일 ~ 2004년 7월 31일) 카

탈로그에서 볼 때 2,000여 가지를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더 많은 품목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현재 인제에서 우체국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품목은 약 20여 가지로 지역특산물인 인진쑥(인제에서 생산되는 진짜 좋은 약쑥), 치커리 등을 이용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인제결명자, 인제국수세트, 인제기린인진쑥참술잎, 인제도라지엑기스, 인제마가루, 인제명진농장도라지청, 인제명진농장인진쑥, 인제북설악도라지청, 인제설원치커리치커리농축액, 인제쑥가루, 인제인진쑥농축티백창백출, 인제자연산생즙인진쑥, 인제차세트, 인제팍콘, 내설악인진쑥환, 내설악치커리농축액, 내설악황태, 설악황태, 설악인진쑥, 설악치커리농축액 등이다.

3) 명예군민제도 활용

현재 우리나라의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인구가 5만명 이하이며 인제는 3만여명으로 매우 적은 편으로 세금으로 보나 자체 생산한 농산물 소비 등을 보나 좀더 많은 인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군내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 명예군민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명예군민으로 가입을 신청하거나 지역내에 있는 백담사 등의 유료관광지에 명예군민 가입신청서를 비치하여 적극 가입을 권유한다. 약 10만명 이상을 확보하여 명예군민에게는 군내에 있는 시설, 숙박업소의 비용 및 관내 주유소의 기름도 할인하여 주고 인터넷이나 지역내에서 농산물을 주문할 때에도 물론 혜택을 준다. 군의 행사에는 초청장을 보내준다. 우리지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일만이 살길이다.

III. 결론

위에서 제시된 식물원을 중심으로한 지역명소로의 약용식물원 만들기, 도농 녹색교류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활용, 명예군민제도 활용 등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할 것이다. 각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좀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이다. 지역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차별화, 지역관광에 대한 적극적 홍보,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일이 반드시 거창한 구상이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역의 명소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만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천연 약초의 무진장한 고장 인제에서는 약용식물원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더욱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컴퓨터와 기계가 발달되어도 결국에 세상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려면 우리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고장, 이웃, 가족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다. 성실하고 모범되며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와 함께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일을 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